

안 그래픽스
디자인·인쇄·싸인
모든 종류의 인쇄물 및 싸인 제작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골든스텝 꽃집
경혼식꽃 전문
각종 행사 및 기념일
서재옥(토마스), 서애영(데레사)
770-992-1797

회계법인태평양 (구 시원회계법인)
정시욱 루뽀 CPA
770-817-9600
3175 Satellite Blvd., Suite 325, Duluth, GA 30096

오즈냉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유스티노)
770-910-5656

Smile DENTAL GROUP
스마일 원 치과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Suite #203
Suwanee, GA 30024
김세희 소화테레사

KELLER WILLIAMS
오현정 부동산
유리안나 Juliana Oh
Associate Broker
678-908-4945

아세아 여행사
미셸 박
404-819-9227
(카톡, 텍스트)
michellehpark@hotmail.co

리버밴드 오토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3322 Peachtree Ind. Blvd. Duluth, GA 30096 Office 770.623.5940

SO GOOD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전문점)
www.sogoodbridal.com 470-545-2640
www.sogoodbb.com 678-580-2181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FARMERS INSURANCE
자동차/집/사업체/생명
WC/메디케어/IRA/연금

공항서비스·대리운전·관광안내·회사어카운트
올림픽 콜리무진
T. 770-696-7517 T. 678-699-5462
T. 010-5906-8945(한국에서)

로렌 배 보험
(모니카)
470-282-1654
스와니 아씨 상가

VINEYARD REALTY
"부동산 과 용자를 한국에서"
조셉 김 678-361-6230
GMC 용자 켈리 김 770-634-5646

770-614-1738
성물점 GIFTS
GOLD-CROSSES-REPAIRS
십자가, 선상, 금, 은, 주문제작
성화, 묵주, 책, 신발수선
Suwanee Wal-mart 내 티-셔츠 프린팅
3255 Lawrenceville Suwanee Rd. #L

배용자(루시아)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장기간호보험
뮤추얼 펀드
678-665-5400

조앤 리 부동산
주택·상가·렌트·관리
678.770.1136
E-mail: Realtorjoanne@gmail.com
Broker Joann Lee (아네스)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404-966-1919 남기원(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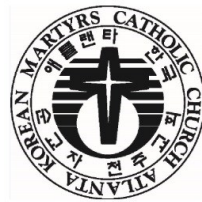
오약국
470.223.4775
오민환 약학박사 존스크릭 H-Mart 건너편,
(파비아노) Bank of America 뒷건물

본당 성물방 시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
까지
(예약 주문/상담가능)

미소 치과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Ste#200
Duluth, GA 30096
남상우(시몬), 남수진(세실리아)

강 형 기
카이로프랙틱
교통사고 전문
강형기 (사도요한)
770-495-0014
678-468-0985
3585 Peachtree Industrial Blvd #102 Duluth, GA 30096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lcpa.com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홈페이지: http://www.kmccga.org
E-mail: kmccga.office@gmail.com | Tel 770.455.1380 Toll free 888.222.9218 | Fax 770.455.4262

제1961호 | 2018년 10월 21일 | 연중 제29주일 | 발행인: 이재욱 요한 신부

- † 미사 시간
일: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15분(영어)
월: 없음
화: 정오 12시
수: 오후 7시 30분
오후 8시 (구역미사)
목: 오후 7시 30분
금: 정오 12시
토: 오후 7시 (특전미사)

† 고백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혼인 성사
6개월 전까지 사무실로 신청

† 유아 세례 / 병자 성사
사무실로 연락

† 사무실 시간
일: 오전 7:30-오후 3:00
월: 휴무
화 ~ 금: 오전 10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6시

† 본당신부
이재욱 요한
Johan Chae-uk Lee, S.J.
lcujhnsj@hanmail.net

† 보좌신부
김형철 시메온
Simeon Hyung Chul Kim, S.J.
grisanchung@daum.net

† 사목회장
왕일모 미카엘
Michael Il Mo Wang
352-359-2151
kmccga.chair@gmail.com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코 10,35-45〉

성 가 입당: 458 봉헌: 216, 212 성체: 498, 172 파견: 6
제 1 독서 이사야 53,10-11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리라.>
화 답 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서 히브리서 4,14-16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좌로 나아갑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10,35-45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 조남경(필립)
- 김계환(안토니오)
- 민병숙(라파엘라)
- 이중화(바오로)
- 조경희(글라라)
- 이창욱(크리스티나)
- 김송옥(데레사)
- 채중현(아오싱)
- 이금숙(세실리아)
- 박정자(데레사)
- 박재봉(베드로)
- 이재일(그레고리오)
- 김미영(인덕마리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19년 부활절 영세를 위한
성인 예비신자들을 위해

전례분과
김상순 770-820-9132

구역분과
남현석 770-827-9987

성모회
서차영 770-723-0380

대건 한국학교
노시현 678-677-3515

예비신자 교리반
이연숙 404-293-9319

선교분과

레지오 마리아
박순기 678-793-5881

성령기도회
김성애 678-779-1387

올드레아
조경희 404-610-8086

M.E.
손영덕 678-896-1837

C.L.C.
김옥경 770-912-8282

84.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세계 교회사 100대 사건

—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승인 공의회 우위설 사라지고 교황의 영적 권위는 강화



← 1870년 7월 18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 광경

1869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시초부터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의 신조화가 이뤄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시작됐다.

트리엔트 공의회(1548~63) 이후 3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교회는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났으나, 계몽주의와 함께 혁명이 가져온 자유주의의 이념은 전 유럽에 전파됐다. 교회는 혁명과 자유주의에 대한 혐오로 보수적 전제 군주들과 제휴했는데 프랑스의 2월 혁명과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보수적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면서 유럽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시대로 들어섰다. 자유주의자였던 교황은 민족주의자들의 봉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바꾸었고, 교회가 직면한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공의회의 소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비오 교황은 1854년 12월 8일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오랜 신앙을 교의로 선포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포 자체보다 선포 방식이었다. 즉 그것은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교황좌의 선언이었다.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공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앙진리를 홀로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새로 토론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에 대해 교황은 모든 주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성대하게 선포할 때 추기경과 주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결정한 것은 결국 교황 혼자였다.

10년 뒤인 1864년 12월 8일 교황은 가톨릭의 입장에서 배척돼야 할 80개의 오류를 총괄한 「오류표」(Syllabus)를 모든 주교들에게 보냈다. 여기에서 범신론, 자연주의, 유리주의(唯理主義), 나아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등을 포함해 특히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예리하게 배척됐다.

한편 서유럽에서는 갈리아주의, 요셉주의, 페브로니우스주의, 안센주의에 대응해 교황권 강화를 내세운 교황 지상주의가 다시 등장했다. 이들은 강력한 교황 중앙집권 체제를 주장하면서 교권과 속권을 모두 지닌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독일의 뢰링거(Döllinger, 1799~1890)를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지성인들은 지성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교황의 무류권과 수위권에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했다.

교황은 1869년 6월 29일 공의회 개최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개막 전부터 찬반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던 무류성 문제는 12월 2일 공의회가 개막되고 나서도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무류성 문제는 일단 의제에서 제외됐고 교회에 위협을 주던 세속주의 사조들의 문제부터 먼저 다루기 시작했다. 1870년 4월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톨릭 신앙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아들」(Dei Filius)은 창조주, 삼위일체, 천주 강생, 계시, 신앙, 신앙과 이성 등의 정통 교리를 제시했고 이러한 교리를 거부하는 유물론, 합리주의, 범신론, 이신론, 합리주의적 성서관, 신앙주의, 회의론,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사상들을 오류로 단죄했다. 이후 공의회에서는 무류성에 대한 의제가 채택됐고 교황은 이 의안을 교회에 관한 헌장에서 다루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주교들은 찬성했으나 일부 주교들은 시기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마침내 1870년 7월 18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실시된 표결을 통해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 교리를 담은 교회에 관한 헌장 「영원한 목자」(Pastor Aeternus)가 533대2로 승인됐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최종 표결을 통해 결정된 이 내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서 교황은 전 교회와 각 교구에 대해 완전히 정상적이고 직접적인 주교권, 즉 전 교회의 주교로서의 교황이 지니는 수위권을 지닌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황이 직무의 소유자로서(ex cathedra), 전 교회를 위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ex sese) 그러할 수 없다는 무류성의 교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

김옥경 부동산
에밀리 김
Associate Broker
(C) 770-912-8282
(O) 404-843-2500

리 장례식장 (귀넷)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넷: 770-622-2525

LAW OFFICE OF
SE HO MOON, P.C.
YOUR IMMIGRATION NAVIGATOR
문세호 (시메온) 변호사
이민, 파산, 세금, 채무관계, 가정법
770-755-5388 sehoonmoon@yahoo.com

MBA, Real Estate, University of Florida
박지연 부동산
집찾는 마법사
770-687-0750
office: 770-557-1867
Bestrealtor4989@gmail.com
King Star Realty 주택,상가,투자,렌트 실비아

음악과 테니스 특수한 장소에서!
한 장소에서!
김영혜 (가타리나)
자체 테니스 코트 6개를 갖춘
전문 테니스 학원 &
33년 전통과 실력의
AMA 음악학원 2호점
1호점 Suwanee
2호점 Sugarhill
770-862-4223

이크리스티나 보험 금융
678-665-3882
은퇴/연금/교육/생명보험

정승옥 변호사
(미카엘)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무료상담 전화 770.495.9994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더조은 척추
박찬규 (레오)
운동상해 (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대건한국학교 2018-2019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안내
· 모집 대상 : Pre-K(만 4세) - 고등학생, 성인
· 수업 기간 : 2018년 8월11일~12월8일 (16주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요일 09:15-12:30
·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 특활 과목 : 난타(북,장고), 서예/한국화, 미술, 동화/연극, 태권도, 가베(유아반)
· 주요교내행사 : 추석/설날잔치, 가을운동회, 낱말/받아쓰기/동요/동화/발표력대회
· 등록일 : 4/21~5/5 (추가등록:5/12~8/11)
· 등록금 : 한자녀 \$210/ 두자녀 \$370/ 세자녀 \$520 (교재, 간식, 교지\$10포함)
· 등록장소 :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교무실 또는 본당 사무실)
Tel 770-455-1380 / Fax 770-455-4262 / Email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Payable to : KMCC Daegon Korean School

등록 장소 애틀랜타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연락처 678-677-3515 노시현(네오미시아)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우편접수가능/등록원서다운 (http://kmccga.com/xe/office)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안내
아마존 스마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구입금액의 0.5%를 아마존이 본당에 도네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용방법
1). smile.amazon.com 을 이용하여 아마존스마일로 들어갑니다.
2). Choose Charities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지정합니다.
(주의: 비슷한 이름의 성당이 있으니, Doraville, GA에 있는 성당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3). 계속 smile.amazon.com 을 이용해 shopping 합니다.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아마존 스마일과 연계할 경우, 본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나창섭 (678-357-6381)/박형근 (770-861-2553)

명품 중식 레스토랑
만천홍
매주
필요일은
입니다
T. 770.454.5640
5953 Buford Hwy, Suite#105 Doraville, GA 30340

RADFORD & KEEBAUGH
www.DecaturLegal.com
근로법·노동법 (Employment Discrimination, FMLA, Minimum Wage, Tip Credit, Overtime)
/헌법소송/기타 민사소송 전문
이승은 제르투르다 (Gertrude) 변호사
T: (678) 271-0304
Email: april@decaturlegal.com
315 W. Ponce de Leon Ave. Suite 1080 Decatur, Georgia 30030

2018년 AA 기금 납부 현황 (10월 14일 현재)

교구 할당액: \$54,100

금주 납부액: \$860 누계 납부액: \$57,896 달성율: 107.0%

2018 AA 기금 금주 납부자 (총 12명)

김상국 나창섭 박송자 박연순 배정율 서동민 소계섭 손철영 이성철 이종길 최인영 한성인

우리 공동체의 이모저모

<경로 가을소풍> →

10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Lucky Shoals Park에서 경로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2019년 부활 영세자 교리반> ↑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2호실에서 교리반 수업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뽀레시디움> ↑

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본당 소년으로 구성된 레지오 '셋별' 뽀레시디움 주회합이 대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 <예수회 후원회>

매 주일 친교실에서 예수회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교우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레지오 마리아> ↑

10월 14일(일) 오후 12시 30분 소성당에서 열린 꾸리아 월례회의에서는 '자비의 모후' 뽀레시디움의 사업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M.E. 피정 기금 마련 골프대회> ↑

10월 14일(일) 오후 1시 30분 Heritage Golf Club에서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성서 그룹공부반 봉사자> ↑

10월 14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10호실에서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 <1일침묵피정>

11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성 김 대건 성당에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일 피정이 있습니다. 주일 친교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은
목주기도 성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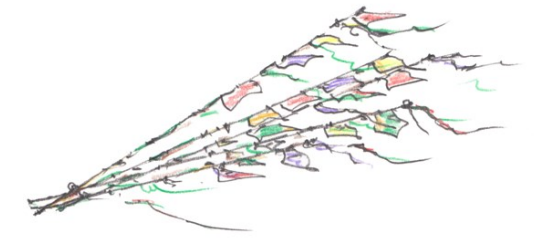
만선 기원 <마태오 28,16-20>

배영길 베드로 신부

만선을 기원하며
이것저것 장대에 매달아
알록달록 장식하고,
만선을 기대하며
이 길을 나섭니다.

만선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며.

돌아올 때,
님께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통 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제1독서인 이사야서 53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났습니다.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이사 53, 11)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짊어진 주님의 종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많은 이들을 의롭게' (같은 구절) 하였습니다. 제2독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분께서 바로 대사제로서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아버지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산책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코 10,35-45>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인지 협박인지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르 10, 35)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뽑으신 것은, 우리를 뽑으신 것은 '후손 (offspring)'(이사 52,10)이 되어 하느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영광'을, 그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마르 10,38)을 들라고 하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어려운 것뿐 아니라, 따

르기도 난감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봉사'라는 거창한 말이 이미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를 '그들의' 종으로 여기면서 나의 시간을, 의지를, 생각을, 재물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면 이미 그 잔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친 몸은, 헐벗고 보잘것없어진 '종'은 '영광의 때'에, 아니 이미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찰

내가 무엇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수 있습니까?

→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을 선언한 공의회 결정에 대해, 독일의 일부 주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교들이 수용함에 따라 교황권은 더욱 강력해져 중앙집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교회 안에서는 13세기부터 내려 오던 「공의회 우위설」과 갈리아주의가 내세웠던 국교회 사상이 사라지게 됐다. 또 교황령의 붕괴와 함께 교황의 속권은 상실됐으나 그 영적인 권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됐고 교황은 이제 세속 군주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는 정신적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혔다. 하지만 이 교리 결정이 이뤄진 직후 공의회는 갑자기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이 일어나 많은 교부들이 귀국해야 했고 1870년 9월 20일 로마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공의회를 계속할 수 없었다.

교황의 수위권이 정립됐으나 주교직과의 관계는 정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단체성보다 수위성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결국 유럽의 혼란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공의회는 폐막됐고 이 문제는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와서야 다뤄지게 된다.

[가톨릭 신문, 박영호 기자]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0월 14일)

본당 미사참례 인원		총 610 명	
특전 미사	92명	오전 8시 30분	113명
오전 10시 30분	294명	종교학교 미사	111명
성물방	\$ 116.00	주보광고비	\$ 1,440.00
교무금	\$ 6,736.00	주일 헌금	\$ 4,237.00

교무금 봉헌 하신 분 (2018년 10월 14일)

강말희 (7~12)	박재강 (10)	유옥희 (10)	정창래 (10)
김경숙 (10)	박재현 (10)	유한중 (10)	주인국 (10)
김남우 (10)	박호남 (100)	윤성진 (10)	천병호 (10)
김면기 (10)	방남규 (9~10)	이경우 (10)	최제인 (10)
김성강 (10)	배정울 (9~11)	이국진 (9)	한성인 (10)
김영우 (10)	소계섭 (9)	이덕환 (10)	한현복 (9~10)
김용준 (9~10)	손병현 (10)	이명환 (10~12)	홍남식 (9~12)
김준호 (10~12)	송창률 (10)	이복화 (9)	
나영숙 (10)	신기현 (10)	이성철 (9)	
남명애 (9)	오영택 (9~10)	이수진 (10)	
노종업 (10)	원용방 (10)	이창호 (9~10)	
박연순 (9)	유성렬 (9~10)	정성두 (8~12)	

【 새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 문의: 서미영 (404-610-0057)

- 1. Body Worship (울동 찬양)**
일시: 매주 (화) 10:30am, 소성당
- 2. 청춘 가요 교실**
일시: 매주 (화) 1:00pm, 소성당, 강사: 이경희 (로사리아)
- 3. 스포츠 댄스**
일시: 매주 (화) 3:00pm, 소성당, 강사: 송희성 (레오날드)
- 4. 시 창작 클래스**
일시: 매주 (목) 1:30pm, 110호, 강사: 윤화진 (다니엘) 박사
- 5. 기타 클래스**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목) 8:00pm, 대건도서관, 강사: 나창섭 (베네딕토)
- 6. 난타 클래스**
일시: 매주 (금) 1:30pm, 소성당, 강사: 오안젤라 (10월 5일 시작)
- 7. 피아노 레슨 (Key Board)**
일시: 매주 (금) 3pm, 소성당, 강사: 김영혜 (카타리나/AMA 음악학원 원장)

전례 봉사자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0/20 (토) 오후 7:00	홍지희	이재돈 신경아	오유진 남소호
10/21(일) 오전 8:30	이숙자	서상희 서정원	김채빈 최예은
10/21 (일) 오전 10:30	남수진	유한중 심지영	오다운 이준하 김태환 김아론
10/21 (일) 오후 12:15	Daniel Kim	ThomasLee RosaKim	이유나 김태환
10/27 (토) 오후 7:00	김주환	이봉근 송보경	소현교 전지우
10/28 (일) 오전 8:30	서정원	전홍 최인경	김다혜 장재은
10/28 (일) 오전 10:30	김영보	서재욱 서해경	박진효 김태훈 송한솔 성리디아
10/28 (일) 오후 12:15	Jenny Choi	Matthew Seo Deborah Seong	신준완 최미나

전례 담당 구역

10/21 (일)	연중 제29주일	Johns Creek-2
10/28 (일)	연중 제30주일	Marietta 나눔
11/4 (일)	연중 제31주일	Marietta 사랑
11/11 (일)	연중 제32주일	Marietta 자비

점심 봉사 및 주차 봉사

일	자	점심 봉사	주차 봉사
10월	21일	Johns Creek-1	빛과소금
10월	28일	In Town Atlanta	CLC
11월	4일	복사단PTA	성령기도회
11월	11일	성령기도회	ME

구역 미사

11/7 (수)	In Town Atlanta 도효준(그레고리오)형제님덕	오후 8시 404-431-4580
11/21 (수)	Johns Creek-1 최창희(베르나르도)형제님덕	오후 8시 404-821-1114

◆교구 2차헌금 (Church in Latin America)이 오늘 10월 20일/21일에 있습니다.

행사 안내

◆요한 복음 연수

일시: 10월 27일 (토) 오후 1시~9시
10월 28일 (일) 오후 1시~7시
대상: 요한복음 그룹공부를 마친 신자
강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김경민 어네스트 수녀
장소: 소성당, 신청비: \$50
접수: 10월 첫째, 둘째 주일 친교실
문의: 최준태 (404-918-9763)

◆아기 예수님 봉헌 묵주 기도

목적: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신자 개인의 지향을 묵주기도로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봉헌.

기도 제출 마감: 12월 16일까지 성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에 개인별로 넣어 주시면 성탄 전야미사의 구유 예물로 봉헌함.
문의: 이영숙 (770-625-0787)

2019 동유럽 성지 순례

출발: 4월 28일 (일), 오후 5시 출발
도착: 5월 8일 (수) 애틀랜타 도착
지도 신부: 이재욱 (요한) 본당 신부님
비용: \$3,100
문의: 이영숙 (770-625-0787)

모집 안내

◆레지오 단원 모집 안내

새 남성 프레스비디엄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3층 302호
문의: 서재욱 (678-699-7470)
박순기 (678-793-5881)

◆배드민턴 Member 모집

일시: 매주 화,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친교실
문의: 김상국 (404-353-0358)

◆Yoga 교실 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소성당
문의: 장해선 (470-599-7543)

정기 모임

◆성령 기도회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유아방
문의: 오영숙 (404-518-5881)

◆다락방 기도회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14호
문의: 김영보 (404-376-1894)

◆M.E 모임: 10월 21일 (일)

오후 12시 30분, 110호
문의: 손영덕 (678-896-1837)

◆빛과 소금 모임: 10월 21일 (일)

오후 12시 15분, 유아방 (111호)
문의: 김영배 (404-723-0110)

◆사회 복지 분과 모임

일시: 10월 21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106호
문의: 서미영 (404-610-0057)

◆Marietta 자비반 모임: 10월 21일 (일)

오후 12시 30분, 대건도서관
문의: 김영환 (770-594-3234)

◆전례분과 모임: 10월 21일 (일)

오후 12시 30분, 108호
문의: 김상순 (770-820-9132)

◆등대회 모임: 10월 28일 (일)

오후 12시 30분, 110호
문의: 임창현 (678-698-0515)

◆요셉회 모임: 10월 28 (일)

오후 12시, 소성당
문의: 황재숙 (862-222-0548)

교구 및 기타 소식 안내

◆성 루가 의료봉사회 진료 안내

일시: 11월 4일 (일), 소성당
진료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진료 과목
내과: 지승남, 내과, 산부인과: 이길종
비뇨기과: 전홍, 마취 통증: 유명재
치과: 남수진, 성형외과: 정민현
문의: 정건호 (770-491-1191)

◆본당 40주년 기념집 온라인 발간 안내
본당 40주년 기념집을 온라인으로 발간 하였습니다.

웹사이트(https://issuu.com/kmccga/docs/kmcc_40yrs_final) 또는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access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쇄 책자는 실비(\$10)로 판매합니다.

문의: 박형근 (770-861-2553)

◆2019년 매일 미사책 신청 안내

2019년도 매일미사책의 신청을 주일 친교실에서 받고있으니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 \$40
문의: 김계환 (404-451-3782)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10월 첫째 주부터 특전미사 및 주일 오전 미사 30분 전에 대성전에서 교우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성당 학교 안내

◆주일 학교 안내

문의: 정지연 (404-259-7670)

◆토요 대건 한국학교 안내

문의: 노시현 (678-677-3515)

본당 알림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람.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필히 연락하길 바람.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혼인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필히 사무실로 신청하길 바람.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3일 경로 가을 소풍에 Donation을 해 주신 청솔데이케어, 김시현 내과, 조약국, 익명 2분께 감사드립니다.